

사회운동과 스케일

Scale in Social Movements

정현주(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jung0072@gmail.com)

최근 '스케일'이 지리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제 분야에 걸쳐 유행어가 되고 있다. 스케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고조는 세계화와 지방화, 신자유주의화라는 전 지구적 정치경제 체제의 변동과 맞물려 있으며, 스케일은 이러한 재구조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사회의 다원화되고 중층적인 저항을 고찰하는 이론적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스케일"은 일반적으로 연구 대상의 규모나 범위를 지칭하거나 계층화된 관계 속에서 특정 층위를 지칭하는 의미로 널리 쓰이는 보통 명사이다. 사회과학에서의 스케일은 후자가 가까운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직적 권력관계를 동반하는 개념이다.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스케일 개념은 단편적이고 고정된 개념을 탈피하여, 스케일 자체가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생성된다는 역동적인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스케일의 변동과 생성은 관련 주체들 간의 정치적 권력관계의 재편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사회운동 또는 논쟁정치 담론에서 스케일의 연구는 더욱더 중요해 졌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스케일 담론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사회운동 연구에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스케일 체제의 위기가 자본주의 재구조화를 불러온다는 스케일 재구조화(scalar reconfiguration) 담론은 스케일 체제의 모순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양산해 냄을 시사한다. 이는 사회운동의 동인인 사회적 갈등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규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Swyngedouw(1997)는 포디즘의 위기는 자본축적 양식과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스케일 체제의 미스매치(scalar mismatch)에 기인한다고 보았는데,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운동은 스케일 미스매치를 둘러싸고 구축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스케일의 정치는 사회운동의 주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케일이 다양한 사회적 주체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생성됨을 강조하는 스케일 정치(politics of scale) 담론은 사회운동 조직이 동원 자원과 동맹의 확대를 위하여 스케일을 스스로 창조하기도 하며 기존의 스케일을 넘나드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하였다. 특히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네트워크가 전 지구적인 스케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국경을 초월하여 각 사회운동 부문별로 형성되는 연대(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 또는 TAN)는 글로벌 스케일의 생성을 통한 시민운동의 세계화를 이루어 나갈 뿐 아니라 역으로 개별 국가에 대한 압력을 통해 해당 지역의 로컬 단체를 지원하는 "부메랑 효과"를 사용함으로써 시민운동의 지방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사회운동의 스케일 정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운동 조직이 동원자원과 동맹관계의 확대를 위하여 운동을 더 높은 스케일로 전환시키는 스케일 상승(scaling up) 전략을 고찰하고 있다. 가령 Kelly(1997)와 Kurtz(2003)는 지역의 환경운동이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를 통하여 지

역을 초월하여 국가적 심지어는 국제적인 운동으로 스케일을 전환시킴으로 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 하였다고 주장한다.

스케일 상승 정치에 초점을 둔 연구는 상위 스케일이 하위 스케일보다 더욱 진보적이고 효율적인 운동 환경을 제공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 스케일이 항상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스케일 상승은 상위 스케일에 어필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정체성의 재구성은 특정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갈등과 분쟁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국 보스턴 지역의 반핵운동을 사례로 연구한 Miller(2000)는, 보스턴 지역의 환경운동 단체들이 핵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연방정부에 대항하는 전 국가적인 반핵운동을 결성하기 보다는 핵확산에 강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운동을 조직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시민의 분노를 조직화하고 이를 운동으로 승화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즉, 스케일 상승(up)이나 하강(down)은 운동의 내용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선택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스케일의 정치는 결국 누구를 아군으로 편입시킬지 또는 배제시킬지를 결정하는 수단이 되며 사회운동 전략으로서 스케일의 역동적 역할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스케일은 사회운동의 결과로서 생성되기도 한다. 우선 스케일 정치를 통한 스케일의 생성은 다양한 사회운동의 주체를 만들어 내는데 이들이 동원되는 통로, 즉 운동주체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만들어 낸다. 이러한 물질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서 사회운동의 새로운 동원 전략이 되며 이후 다른 운동 조직의 표본(모듈)이 되기도 한다. 사회운동으로 생성된 스케일은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Actor Network)로 고착화되며 새로운 사회운동 패러다임을 조직해 낸다.

운동의 결과로서 스케일은 물질적 차원뿐만 아니라 상징적 차원에서 생성되기도 한다. 상징적 차원의 스케일은 대체로 언어적 사용(discursive practices)을 통해 생성된다. 운동을 통하여 생성된 스케일은 무수한 운동주체들을 만들어 내는데 이들에 대한 이름 붙이기는 가상의 공동체(imaginative communities)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된다. 가령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반세계화운동은 글로벌 시민이라는 운동 주체를 상징하지만 실제로 이 운동에 참여하는 집단들은 글로벌 시민이라는 추상적 주체이기 보다는 각 지역에 뿌리를 둔 구체적인 로컬 단체들이다. 국내에서도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이후로 전국적 차원의 운동에 “국민행동”이라는 이름 붙이기가 유행하고 있다. 이들 운동에 있어서 행동의 주체들은 실제로 전 국민이 아니라 특정 운동단체들이란 점에서 “국민”은 일종의 가상의 공동체이며 따라서 사회운동의 상징적, 언어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스케일이 정치적이고 가변적인 사회적 구성체임을 반증하는 예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사회운동에 있어서 스케일의 역할은 중층적이며 핵심적이다. 그러나 주류 사회운동 연구는 스케일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주지 않고 있으며 일부 연구들도 특정 주체에 치우친 감이 있다. 가령 대부분의 스케일 정치 연구는 스케일 상승에 집중하고 있으며 스케일 하강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희박하다. 또한 스케일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조차도 스케일의 정치적 측면에만 치우친 나머지 스케일 담론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언어적 측면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부분의 스케일 연구가 글로벌-내셔널-로컬이라는 제도정치의 고착화된 스케일 체제를 답습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스케일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분절적인 단계를 뜻하는 스케일에서 탈피하

여 보다 네트워크 지향적인 개념으로서 스케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Kelly, P., 1997, Globalization, power and the politics of scale in the Philippines, *Geoforum*, 28(2), 151-71.
- Kurtz, H., 2003, Scale frames and counter scale frames: constructing the problem of environmental injustice, *Political Geography*, 22, 887-916.
- Miller, B. A., 2000, *Geography and Social Movement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Swyngedouw, E. 1997, Neither global nor local: "gloc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scale, in Cox, K.R. (ed.), *Spaces of Globalization: Reasserting the Power of the Local*, Guilford Press, New York, 137-166.